

2/11/18

설교 제목: 하나님의 주권인 택하심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9 장 1-18

- (롬 9:1-2)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 (롬 9: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절관주** 출 32:32
- (롬 9: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 (롬 9:5)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 (롬 9: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절관주** 롬 2:28
- (롬 9:7)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절관주** 요 8:33, 갈 4:23
- (롬 9:8)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절관주** 갈 3:29
- (롬 9:9)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 (롬 9:10)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 (롬 9: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절관주** 엡 1:4
- (롬 9:12)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 (롬 9:1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 (롬 9: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관주** 신 32:4

(롬 9:15)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롬 9: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절관주** 시 115:3

(롬 9: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절관주** 출 9:16, 잠 16:4, 출 9:16

제 막내 여동생이 경기 여고 출신입니다.

어머니와 제가 그 입학식에 갔었습니다.

3 월 초였는데 강당이 아니고 학교 운동장에서 입학식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어찌나 춥던지 어머니와 저는 입학식 도중에 살짝 빠져 나와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일찍 돌아 온 어머니와 저를 보고 의아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추워서 끝까지 있지 않고 중간에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혀 만약 예전처럼 시험을 봐서 들어간 경기 여고라면 너무나 자랑스러워 아무리 춥더라도 끝까지 입학식을 지켜보았겠지만 뽑기로 들어간지라 그냥 왔다고 했습니다.

저희 말을 들으신 할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봐서 경기 여고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우냐? 뽑기를 해서 경기 여고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우냐? 나는 뽑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한다.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것이라면 공부만 잘하면 되지만 뽑기로 들어가려면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 나는 내 손녀가 뽑기를 해서 경기 여고를 들어 간 것이 시험을 보고 들어간 것보다 더 자랑스럽다”

당시는 할머님의 이 말씀이 무조건적인 손녀 사랑에서 연유한 억지라고 치부하고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이 나이가 되고 보니 할머님의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며 세상을 오래 살아온 연륜에서 배어나온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 이치가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치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행동 즉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일정한 조건을 성취했느냐 성취하지 못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제 막내 여동생이 뽑기로 경기 여고에 합격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이 돕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예뻐야, 착해야, 돈이 많아야 갈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임의로 택하시는데 거기에 은혜로 뽑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총 16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 장 1 절부터 3 장 20 절까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없이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 다 멸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조차 받지 못한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한 모든 인간은 다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3 장 21 절부터 8 장 39 절까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해 멸망받을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 멸망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하심으로써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 주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길을 열어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기쁜 소식, Good News,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부분은 9 장 1 절부터 11 장 36 절까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말합니다.

넷째 부분은 12 장 1 절부터 16 장 27 절까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본문은 이중 셋째 부분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논하는 첫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슬픔을 말합니다.

(롬 9:1-2)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롬 9: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바로 전장인 8 장에서 성도는 그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도와 주셔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성도의 궁극적 승리를 선언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갑자기 자신의 형제 자매 골육 친척으로 인해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롬 9: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롬 9:5)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민인지라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특권과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영광을 경험했으며 언약과 율법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430 년간의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40 년 동안의 광야 생활 중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고 먹을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생수를 공급해 주셨으며 햇별이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별을 가려 주셨고 일교차가 커 기온이 내려가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기온을 높여 주셨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 40 년 동안 의복과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고 그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게 하였으며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 멸망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애통해하며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혈육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롬 9: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롬 9:7)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롬 9:8)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롬 9:9)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손, 즉 영적인 자손에 국한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난 이삭과 그의 자손들 외에도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들, 또 아내 사라가 죽은 후 얻은 후처 그두라에게서 난 여섯 명의 아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라도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그의 자손들을 제외한 다른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으로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내려온 자손들,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만이 언약의 자손으로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롬 9:10)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롬 9: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롬 9:12)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롬 9:1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삭의 자손이라도 모두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두 아들 중 장자인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차자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훗날 이삭의 장자 에서와 그 자손들은 에돔 족속을 이루어 대대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고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자손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택하심은 에서나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왜 장자인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에서는 얼굴도 잘 생겼고 사냥도 잘하는 멋진 사나이였습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부엌에서 엄마 주변이나 빙빙도는 사람이었으며 거기다 사기성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서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에서를 택하고 야곱을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냥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대한 이슈가 대두됩니다.

(롬 9: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롬 9:15)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롬 9: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긍휼을 베풀어야 이유가 없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주권으로 구원하실 자를 임의로 선택하신다는 말입니다.

(롬 9: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롬 9:18)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를 인용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유하게도 하시고 강팍하게도 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죄를 지어 지옥에 가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인간이 하나님께 왜 저 사람은 선택하고 이 사람은 선택하지 않아 멸망받게 내버려 두느냐고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죄지은 인간 모두를 지옥에 보내어 멸망시켜야 마땅하지만 죄지은 인간 중 당신이 긍휼히 여길 자를 택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시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여기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긍휼과 은혜를 입은 선택 받은 자들입니다.

그저 입 꼭 다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 입이 있다면 그 입을 다 가지고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